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아오모리현의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에 남아있는 수혈식 주거지 터, 대형 건조물의 토대, 대량의 토기가 포함된 성토(흙무지), 무덤지, 토기를 만들기 위한 점토 채굴갱은 선사 시대 이 지역의 생활상과 사회의 모습을 현재에 전해줍니다.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은 현재까지 발견된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마을 터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원전 3,900 년~기원전 2,200 년의 1,000 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 커다란 마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마을의 발전

마을의 규모와 형태는 식량 자원의 입수 가능성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조몬 시대 내내 변화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계절 한정으로 이용되는 수렵 채집지로 시작된 이 마을은 기온이 오르고 식량이 풍부해지면서 영구 정착지로 변모했습니다. 이 기원전 5,000 년부터 기원전 2,000 년 사이에 마을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기원전 3,000 년경에는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과 같은 커다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후 기원전 2,000 년부터 기원전 400 년까지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마을의 규모는 다시 작아졌습니다.

크고 작은 수혈식 건물 터

산나이 마루야마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유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백 명 규모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 개 이상의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길이가 32m 에 달하는 토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혈식 건물 터의 상당수는 복원이 완료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견학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물은 공용 공간, 작업장, 겨울철의 공동 거주 장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덤지

조사에 따르면 어른의 무덤과 아이의 무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내부를 지나는 몇몇 길을 따라 약 500 개의 무덤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이 무덤 구덩이는 어른의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유아는 옹관에 넣어 매장되었습니다. 북쪽의 성토(흙무지) 근처에서는 500 개 이상의 옹관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개의 성토 중 하나인 이 성토에는 많은 토기 편도 묻혀 있었습니다.

교역과 공예품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비취 구슬, 호박 장식품, 흑요석으로 만든 창끝, 아스팔트로 접착된 물건 등 각종 인공물과 기타 미완성품, 가공 전의 재료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본 내 다른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500km 나 떨어진 지역에서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들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재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센터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센터는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이 마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장권을 구입하면 유적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센터에는 5,000점 이상의 토기와 석기가 묻힌 높이 6m의 벽 ‘조몬 빅 월’과 조몬 시대를 테마로 한 토우 만들기 체험, 고고학자들이 토기를 복원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볼 수 있는 정리 작업실이 있습니다. 부지 내부에는 기프트 샵과 카페테리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과 병설 시설에서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유적

홋카이도·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 중 몇 곳이 아오모리현 내에 위치합니다. 아오모리시에 자리한 고마키노 유적[링크]은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에서 불과 수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조몬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환상 열석(거대한 선돌이 둥글게 배치된 유구)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치노헤에 있는 고레카와 유적[링크]의 박물관에는 조몬 시대 말기에 제작된 고도로 세련된 토기와 칠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